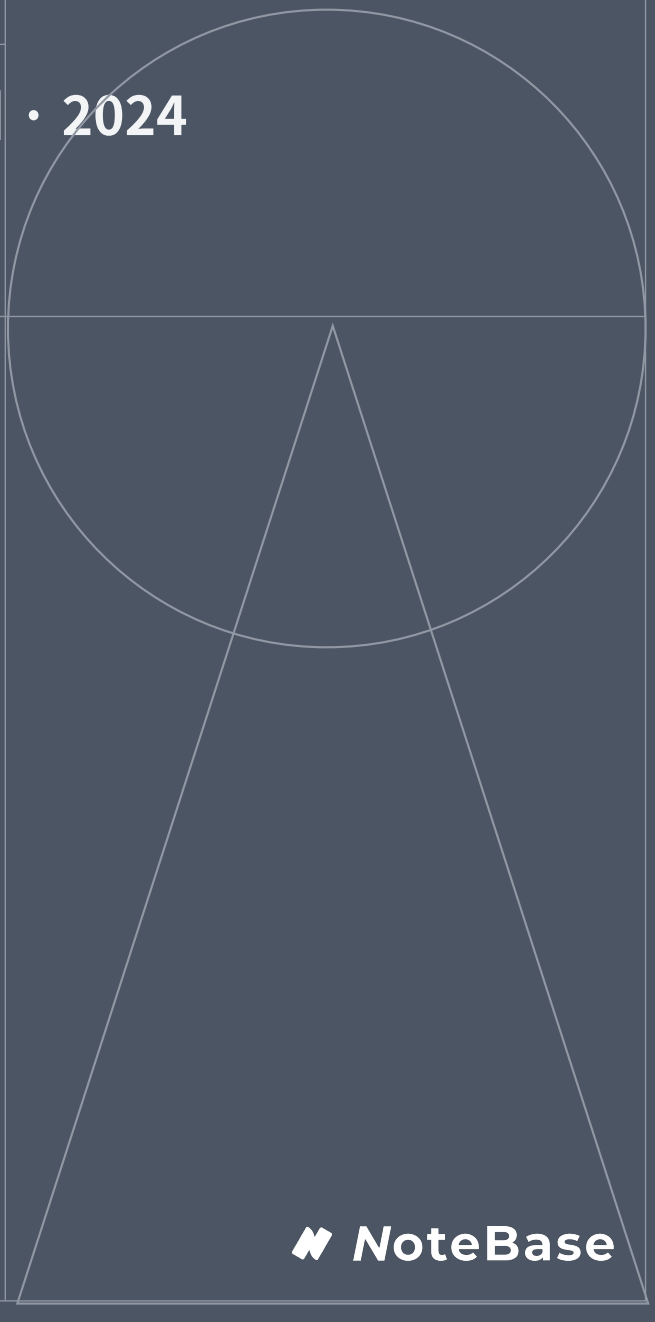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4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4

###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4

1. (가), (나)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 나는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 (가) ](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어려움을 이겨냈다.
> ○ 어린 시절에 뛰놀던 고향은 [ (나) ](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 | (가) | (나) |
|---|---|---|
| ① | 고진감래 | 상전벽해 |
| ② | 고진감래 | 오매불망 |
| ③ | 결초보은 | 상전벽해 |
| ④ | 결초보은 | 오매불망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뜻에 맞는 사자성어를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진감래(苦盡甘來):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찾아옴을 이른다.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른다.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크게 변함을 이른다.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이른다.
따라서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되는 말에는 '고진감래', 크게 변한 고향에는 '상전벽해'가 어울린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힘든 일을 이겨 냄'에는 고생 뒤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가, (나)의 '고향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는 '상전벽해'가 알맞다.
② X — (나)의 '오매불망'이 틀렸다.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나)는 '상전벽해'로 고쳐야 한다.
③ X — (가)의 '결초보은'이 틀렸다. 결초보은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어서 어려움을 이겨 내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 (가)는 '고진감래'로 고쳐야 한다.
④ X — (가)의 '결초보은'과 (나)의 '오매불망'이 모두 틀렸다. (가)는 '고진감래', (나)는 '상전벽해'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나)에 어린 시절의 고향이 나오므로 고향을 '잊지 못한다'는 오매불망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장의 중심은 그리움이 아니라 '큰 변화'이므로 상전벽해가 알맞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자성어를 주변 명사 하나에 연결하지 않고 문장 전체의 핵심 상황에 대응시킨다. '고생 뒤의 즐거움'은 고진감래, '은혜를 갚음'은 결초보은, '큰 변화'는 상전벽해, '잊지 못함'은 오매불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진감래는 고생 끝의 즐거움, 상전벽해는 세상의 큰 변화이다.

NoteBase

2. ㉠ ~ ㉣과 바꿔쓸 수 있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백석의 시 「노루」의 공간적 배경은 산골이다. '집터를 츠고'의 '츠다'는 집터를 '치다'의 평안도 ㉠ 방언으로, 집터를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파내거나 ㉡ 평탄하게 고른다는 말이다. 백석의 시에서는 ㉢ 회귀하고 싶은 이상향의 이미지가 발견된다. 또한 ㉣ 상실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으로 이야기한다.

① ㉠ – 사투리로
② ㉡ – 줄을 맞추어
③ ㉢ – 돌아가고
④ ㉣ – 잃어버린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밑줄 친 말의 사전적 의미를 문맥에 적용하여, 바꾸어 쓴 표현이 원문의 뜻을 유지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맥상 유의어는 특정 문장 안에서 서로 바꾸어 써도 중심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말이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시된 여러 뜻 가운데 해당 문장에 맞는 뜻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글의 '땅을 평탄하게 고르다'에서 '고르다'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다듬다'라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방언'은 한 언어가 지역이나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말이며, 이 문맥에서는 '사투리'로 바꾸어도 뜻이 유지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줄을 맞추어'이다. '평탄하게 고르다'는 집터가 될 땅의 높낮이를 없애 평평하게 다듬는다는 뜻이지, 대상들을 한 줄로 맞춘다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평평하게 다듬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O — '회귀하다'는 본래의 자리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므로, '회귀하고 싶은 이상향'은 '돌아가고 싶은 이상향'으로 바꾸어도 뜻이 유지된다.

④ O — '상실하다'는 가지고 있던 것을 잃는다는 뜻이므로, '상실한 것'은 '잃어버린 것'으로 바꾸어도 뜻이 유지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르다’를 ‘가지런하게 하다’와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②의 ‘줄을 맞추어’를 적절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바로 앞의 ‘땅’과 ‘평탄하게’가 의미를 한정하므로, 여기서는 땅을 평평하게 다듬는다는 뜻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만 따로 보지 않고 앞뒤의 목적어와 수식어를 함께 확인한다. 대체 표현을 원문에 직접 넣었을 때 대상, 동작,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살피면 문맥상 바꾸어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땅을 ‘고르다’는 땅의 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를 없애 평평하게 다듬는다는 뜻이다.

NoteBase

3.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사랑하는 혈육과의 사별에서 오는 인간적인 슬픔을 드러내면서도 애통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를 기약함으로써 슬픔을 정화하고 극복하려는 선인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나) ㉠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① ㉠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인간적인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로군.
②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를 기약하고 있음을 ㉡에서 알 수 있겠군.
③ ㉢에서 추모하는 대상이 혈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군.
④ 사별을 애통해하지 않는 이유는 시적 화자가 ㉣에 있기 때문이군.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망매가」의 시어와 비유를 바탕으로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화자의 정서와 불교적 초극 의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간적 슬픔: ㄱ에서는 누이가 작별 인사도 마치지 못한 채 죽은 데 대한 안타까움과 비탄이 드러난다.
죽음과 이별의 비유: ㄴ의 '가을 이른 바람'과 '떨어질 잎'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별을 나타낸다.
혈육 관계: ㄷ의 '한 가지에 나고'는 같은 가지에서 난 잎처럼 화자와 죽은 이가 한 부모에게서 난 남매임을 뜻한다.
불교적 초극: ㄹ에서는 화자가 도를 닦아 미타찰에서 누이와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슬픔을 극복하려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에는 사랑하는 누이가 작별 인사도 끝내지 못하고 죽은 데 대한 인간적인 슬픔이 드러난다.
② X — 틀린 부분은 'ㄴ에서'이다. ㄴ은 떨어지는 잎의 비유로 갑작스러운 죽음과 이별을 나타내며,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를 기약하는 부분은 미타찰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ㄹ이다.
③ O — ㄷ의 '한 가지에 나고'는 같은 가지에서 난 잎처럼 화자와 죽은 이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 즉 혈육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추모 대상은 화자의 누이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사별을 애통해하지 않는다'와 '시적 화자가 ㄹ에 있다'이다.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현재 미타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는 도를 닦아 미타찰에서 누이와 다시 만나겠다는 미래의 다짐을 통해 사별의 슬픔을 초극하려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죽음의 비유가 나타난 ㄴ과 재회의 기약이 나타난 ㄹ을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④는 슬픔을 초극하려는 태도를 처음부터 슬퍼하지 않는 태도로 오해하게 하고, 미래에 만나고자 하는 공간인 미타찰을 화자의 현재 위치처럼 제시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시된 시구의 핵심 기능을 각각 연결한다. ㄱ은 사별의 비탄, ㄴ은 낙엽을 통한 죽음과 이별의 비유, ㄷ은 같은 가지를 통한 혈육 관계, ㄹ은 미타찰에서의 재회 기약과 불교적 초극이다.

**암기 포인트**

ㄱ은 슬픔, ㄴ은 낙엽 같은 이별, ㄷ은 한 가지에서 난 남매, ㄹ은 미타찰에서의 재회이다.

NoteBase

4. 다음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사실 논제: 참과 거짓으로 양립 가능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고 반박하는 데 초점을 둔 논제
> ○ 가치 논제: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함을 주장하는 데 초점을 둔 논제
> ○ 정책 논제: 특정 정책을 시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장하는 데 초점을 둔 논제

①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가치 논제이다.
②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논제이다.
③ '드라마 속 간접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 논제이다.
④ '사생활 보호가 공공의 알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 논제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를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실 논제: 어떤 사실의 존재나 상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논제이다. 키워드는 '존재한다', '발생했다' 등이다.
가치 논제: 어느 대상이나 가치가 더 중요하거나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논제이다. 키워드는 '더 중요하다', '우선되어야 한다' 등이다.
정책 논제: 특정 행동이나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주장하는 논제이다. 키워드는 '규제해야 한다', '도입해야 한다' 등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사실 논제이다. '가치 논제'라는 분류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사실 논제'이다.
② X — '환경 보존이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는 두 가치의 중요도를 비교하는 가치 논제이다. '사실 논제'라는 분류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가치 논제'이다.
③ O — '드라마 속 간접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규제라는 구체적 정책의 시행을 주장하므로 정책 논제이다.
④ X — '사생활 보호가 공공의 알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두 가치 중 무엇을 우선할지 판단하는 가치 논제이다. '사실 논제'라는 분류가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가치 논제'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표현만 보고 정책 논제로 판단하거나, 모든 단정형 문장을 사실 논제로 판단하기 쉽다. ④는 구체적인 행동의 시행 여부가 아니라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므로 가치 논제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존재·상태의 참과 거짓을 따지면 사실 논제, 중요성·우선성·바람직성을 비교하면 가치 논제, 구체적인 제도나 행동의 시행 여부를 주장하면 정책 논제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사실은 참·거짓, 가치는 중요·우선, 정책은 시행·행동이다.

NoteBase

5. 글쓴이가 주장하는 놀이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놀이는 도전을 의미한다. 하지 않던 것을 해 보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 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놀이터는 해보지 않던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물론 놀이터에서 자주 다쳐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작은 부상들을 통해 무엇이 위험한지, 위험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를 유아 수준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
> 이제 놀이터는 아이들이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놀이터는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이라는 기둥 옆에 '도전'과 '모험'이라는 기둥도 함께 세워 가야 할 때이다.

①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모험하는 공간
② 작은 부상도 입지 않는 안전한 공간
③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
④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쓴이가 바람직한 놀이터에 요구하는 핵심 조건을 파악하고, 글의 주장과 어긋나는 선택지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쓴이가 말하는 놀이터는 아이들이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겪는 작은 부상은 위험과 조심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게 하므로, 모든 위험을 없앤 공간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놀이터는 아이들이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도전·모험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작은 부상도 입지 않는'이다. 글쓴이는 작은 부상을 통해 무엇이 위험한지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다고 보므로, 올바르게는 '작은 부상의 가능성을 무조건 없애기보다 도전 과정에서 안전한 방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③ O - 글쓴이는 놀이터가 해 보지 않던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새로운 도전'과 일치한다.
④ O - 글의 마지막에서 놀이터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 포인트

'안전한 놀이터'라는 일반적 인식만 따르면 ②도 적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 안전이 아니라, 작은 부상을 겪으며 위험을 판단하고 조심하는 법을 배우는 안전을 강조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장형 독해에서는 반복되는 핵심어와 필자의 반박 대상을 함께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도전·모험·창의'가 긍정되고, 작은 부상까지 없앤 놀이터를 안전하다고 자만하는 태도는 부정된다.

### 암기 포인트

놀이터의 핵심은 위험의 완전 제거가 아니라 도전 속에서 안전을 스스로 배우는 데 있다.

NoteBase

6. 다음 글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합성어는 구성 요소(어근 + 어근)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분류된다. 대등 합성어는 '손발'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의미가 대등한 또는 병렬적인 합성어이다. 이에 비해 종속 합성어는 '손수레'처럼 두 어근 중 어느 하나가 의미의 중심을 이루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의미를 보충하는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융합 합성어는 두 어근 중 어느 쪽의 의미도 아닌 제3의 의미일 때를 말한다. 대부분의 융합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나 종속 합성어의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합성어 '뛰어나다'는 구성 요소인 '뛰다'나 '나다'의 의미를 벗어나 '남보다 월등히 훌륭하거나 앞서 있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것이다.

① '손가락이 길다.'에서 '손가락'은 종속 합성어이다.
② '논밭에 씨를 뿌린다.'에서 '논밭'은 대등 합성어이다.
③ '가을 하늘이 높푸르다.'에서 '높푸르다'는 대등 합성어에서 의미가 변화한 융합 합성어이다.
④ '미안한 마음은 쥐꼬리만큼도 안 든다.'에서 '쥐꼬리'는 종속 합성어에서 의미가 변화한 융합 합성어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합성어를 구성하는 두 어근의 의미 관계와, 결합 뒤 의미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대등 합성어·종속 합성어·융합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등 합성어: 두 어근의 의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등하거나 병렬적인 합성어이다.
종속 합성어: 한 어근이 의미의 중심이 되고 다른 어근이 그 의미를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합성어이다.
융합 합성어: 구성 어근의 원래 의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의미를 얻은 합성어이다.
판단의 핵심은 먼저 두 어근의 관계를 살피고, 실제 문맥에서 원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손가락’은 ‘손의 가락’으로 풀이되므로 ‘가락’이 의미의 중심이고 ‘손’이 이를 한정한다. 따라서 종속 합성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 ‘논밭’은 ‘논과 밭’처럼 두 어근이 나란히 결합하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수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등 합성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의미가 변화한 융합 합성어’이다. ‘높푸르다’는 ‘높고 푸르다’라는 두 어근의 의미가 그대로 병렬적으로 결합한 말이므로, 올바르게는 의미 변화가 없는 대등 합성어이다.
④ O — ‘쥐꼬리’는 본래 ‘쥐의 꼬리’라는 종속 관계로 풀이되지만, 제시된 문맥에서는 실제 꼬리가 아니라 ‘아주 적은 양’을 뜻한다. 따라서 종속 합성어의 의미가 변한 융합 합성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 오답 포인트

③의 ‘높푸르다’를 낯선 한 단어라는 이유만으로 융합 합성어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융합 여부는 단어의 형태가 아니라 원래 어근의 의미를 벗어난 새 의미가 생겼는지로 판단한다. ‘높푸르다’는 ‘높다’와 ‘푸르다’의 의미가 모두 그대로 살아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와 B’로 자연스럽게 풀리고 두 의미가 그대로이면 대등 합성어, ‘A의 B’처럼 한쪽이 중심이면 종속 합성어로 판단한다. 그다음 실제 문맥에서 구성 어근의 뜻을 벗어난 제3의 의미가 생겼다면 융합 합성어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A와 B’는 대등, ‘A의 B’는 종속, 원래 뜻을 벗어난 새 의미는 융합이다.

NoteBase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수오재(守吾齋)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
>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吾]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
>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
>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도둑이 비록 훔쳐 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
> – 정약용, 「수오재기(守吾齋記)」에서 –

※ 포항의 옛 지명

① 글쓴이는 '자신을 지키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② 글쓴이는 큰형님 집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였다.
③ 글쓴이는 장기로 귀양을 온 것에 억울함을 느꼈다.
④ 글쓴이는 큰형님과의 대화를 통해 의문을 해소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글쓴이가 '수오재'의 이름에 담긴 뜻을 깨닫는 과정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문제이다.

NoteBase

### 핵심 개념

‘수오재’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다. 글쓴이는 발·집·책·옷·양식 같은 외물은 나와 굳게 연결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나’는 욕망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을 수 있으므로 오직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깨닫는다. 이는 자신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스스로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뜻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글쓴이는 외물보다 잃기 쉬운 ‘나’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른다. 따라서 ‘자신을 지키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글쓴이는 큰형님 집에’이다. ‘수오재’라는 이름을 자기 집에 붙인 사람은 글쓴이가 아니라 큰형님이다. 올바르게는 ‘큰형님이 자기 집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였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억울함을 느꼈다’이다. 글쓴이는 장기로 귀양 온 뒤 혼자 지내며 이름의 뜻을 곰곰이 생각했을 뿐, 귀양살이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글쓴이는 귀양지에서 수오재라는 이름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큰형님과의 대화를 통해’이다. 글쓴이는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스스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올바르게는 ‘글쓴이는 자신의 사색을 통해 의문을 해소했다’이다.

### 오답 포인트

②는 집의 이름을 붙인 주체를, ④는 깨달음에 이른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③은 ‘귀양’이라는 상황만 보고 글에 나타나지 않은 억울함을 추측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행동의 주체, 깨달음의 계기, 글에 직접 제시된 감정을 각각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큰형님이 이름을 붙임’, ‘글쓴이가 혼자 사색함’, ‘오직 나를 지켜야 한다고 깨달음’이 판단 기준이다.

### 암기 포인트

수오재의 핵심은 외물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잃기 쉬운 ‘나’를 지키는 일이다.

NoteBase

8. 다음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오늘 강연은 공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공부는 여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공부라는 여행의 시작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낡은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철학은 망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는 완고한 인식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공부라는 뜻입니다.
>
> 공부라는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발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을 뜻합니다. 공부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 그리고 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강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강연자의 경험을 제시하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연에서 말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④ 공적 말하기인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청중에게 경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강연에 실제로 사용된 말하기 방식과 그 효과를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이고, 경험 제시는 강연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구체적인 일을 말하는 방식이다. 비유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며, 공식적 담화에서는 청중을 높이는 경어 표현을 사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니체의 말인 '철학은 망치로 한다.'를 인용한 뒤, 이를 완고한 인식의 틀을 깨뜨린다는 강연 내용의 근거로 활용한다.
② X: 강연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한 부분은 없다. 틀린 표현은 '강연자의 경험을 제시하며'이다. 올바르게는 공부를 여행에 비유하고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③ O: 공부를 '여행'에, 완고한 인식의 틀을 깨는 일을 '망치'에 빗대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까지'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공부가 인식과 실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④ O: 여러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강연 상황에서 '합니다', '바랍니다'와 같은 높임의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예의를 갖춘다.

**오답 포인트**

②의 여행 이야기를 강연자의 실제 여행 경험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지문에서 여행은 공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이며, 강연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겪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담은 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제시된 말하기 방식의 흔적을 지문에서 직접 확인한다.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과 출처, 경험은 화자가 직접 겪은 구체적 사건, 비유는 'A를 B에 빗댄 표현', 경어는 높임 종결 표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비유로 든 '여행'은 강연자의 경험담이 아니다. 경험 제시는 화자가 직접 겪은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야 한다.

NoteBase

9. 다음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뻔뻔스럽긴. 이젠 순 배짱이잖아. 소리 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비원을 사이에 두고 '하랍신다', '하신다더라' 하며 신경전을 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가르친 지혜였다. 지난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실내용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로 인해 고통 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조곤 타이르리라.
>
>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 십 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
>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 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
>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
> — 오정희, 「소음 공해」에서 —

①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

② '나'는 소음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③ 공동주택을 배경으로 소음 공해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 있다.

④ '슬리퍼'는 소음의 원인이자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정답 4번**

NoteBase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 변화, 소재의 기능, 결말의 반전이 작품 속 구체적 단서와 일치하는지를 묻는다.

### 사례 정리

‘나’는 위층 소음에 화가 나서 실내용 슬리퍼로 조용히 해 달라는 뜻을 전하려 한다. 그러나 위층에서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를 만나고, 그녀가 바퀴를 교체하려 했으며 미안하다고 말하자 준비한 말을 잃고 슬리퍼를 등 뒤로 감춘다.

### 핵심 개념

소재의 기능은 작품에서 그 물건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뜻한다. 이 작품에서 슬리퍼는 소음의 원인이 아니라 ‘나’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매개이며, 반전은 소음의 사정을 알게 되는 만남에서 생긴다.

### 적용 기준

인물의 의도는 행동과 독백으로, 심리 변화는 만남 전후의 행동으로, 소재의 기능은 등장인물이 그 소재를 마련한 목적과 결말에서의 쓰임으로 판단한다.

### 선지별 해설

① O — ‘나’는 슬리퍼를 선물해 소리를 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공동생활의 규범을 타이르려 한다. 이는 소음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② O — ‘나’는 위층 여자가 휠체어를 사용하고 바퀴를 갈려고 했다는 말을 듣자 준비한 말을 잃고 슬리퍼를 등 뒤로 감춘다. 소음의 정체와 사정을 확인한 뒤 자신의 항의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다.
③ O — 작품은 공동주택의 위아래 층을 배경으로, 위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나’와 그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웃 사이의 갈등을 다룬다.
④ X — ‘슬리퍼는 소음의 원인’이라는 부분과 ‘극적 반전의 계기’라는 부분이 모두 부적절하다. 올바르게는 슬리퍼는 소리를 줄여 달라는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준비한 소재이며, 극적 반전은 위층 여자가 휠체어 사용자이고 소음이 휠체어 바퀴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데서 일어난다.

### 오답 포인트

④는 슬리퍼와 소음이 관련 있다는 표면적 인상을 이용해 소재의 역할을 바꿔 놓았다. 작품 속 소음은 위층의 휠체어 바퀴와 관련되고, 슬리퍼는 ‘나’가 항의의 뜻을 담아 건네려던 선물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 이해 문제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만남 전후로 나누고, 소재가 등장한 목적과 실제 사용 결과를 확인한다. 특히 ‘원인’, ‘계기’, ‘상징’처럼 기능을 단정하는 표현은 본문의 인과관계와 정확히 맞는지 대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슬리퍼는 항의의 매개이고, 휠체어를 탄 이웃과의 만남이 반전의 계기이다.

NoteBase

10.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保護)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奉仕)하는 사람이다.

③ 현장에서 쌓은 여러 경험(經驗)이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④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入場)을 분명히 밝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뜻과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자어는 음이 같더라도 한자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문장 속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입장'에서 入場은 '장소에 들어감', 立場은 '처지나 관점'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보호(保護)'는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지켜 보살핀다는 뜻이므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문맥에 맞는다.
② O — '봉사(奉仕)'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쓴다는 뜻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문맥에 맞는다.
③ O — '경험(經驗)'은 실제로 보고 듣거나 겪어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뜻하므로 '현장에서 쌓은 여러 경험'이라는 문맥에 맞는다.
④ X — '입장'을 入場으로 쓴 부분이 틀렸다. 入場은 '장소에 들어감'을 뜻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협상에서의 '처지나 관점'을 뜻하므로 '우리나라의 입장(立場)을 분명히 밝혔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入場과 立場은 모두 '입장'으로 읽히지만 뜻이 다르다.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나 내세우는 관점'은 장소에 들어간다는 入場이 아니라 처지·관점이라는 立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 앞 한자어를 문장 속 쉬운 말로 바꾼 뒤 한자의 뜻과 대조한다. '들어감'이면 入場, '처지·관점'이면 立場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入場은 들어갈 입(入), 立場은 설 입(立)이다. 장소에 들어가면 入場, 처지나 관점이면 立場이다.

NoteBase

11.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부 혜성은 육안으로 예측된다.

②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도덕적 당위이다.

③ 감독은 선수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④ 언어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측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리는 것이고, 관측은 눈이나 기구로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육안으로'처럼 직접 보는 상황에는 '관측된다'가 어울린다.
존중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 고취는 사상이나 감정 등을 북돋우는 것, 방임은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육안으로 예측된다'는 부적절하다. '육안으로'는 눈으로 직접 본다는 뜻이므로, '일부 혜성은 육안으로 관측된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높이어 대한다는 의미에서 '생명을 존중하는'은 문맥에 알맞다.
③ O —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우려 했다는 의미이므로 '사기를 고취하기'는 문맥에 알맞다.
④ O —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무관심과 내버려 둠을 나란히 제시했으므로 '방임'은 문맥에 알맞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 혜성이 나타날 시점을 미리 헤아리는 상황이라면 '예측'이 가능하지만, '육안으로'는 실제로 보는 방법을 나타낸다. '육안'에 이끌리는 서술어는 '관측하다'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보지 않고, 앞뒤 말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수단을 나타내는 '육안으로' 뒤에는 '보다·관측하다' 계열의 말이 오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미리 헤아리면 예측, 실제로 살펴보면 관측이다.

NoteBase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주된 내용인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시장 기구를 통한 시장적 의사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기구를 통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다. 이 둘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부터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
>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은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즉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자신의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권을 행사하는 정도가 다르며, 철저하게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경제적인 효율성이 중시되는 것이다. 이때의 의사 결정은 완전 합의와 자발성을 근간으로 한다.

① 자원의 배분은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소득의 분배는 시장적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구성원의 경제력에 따라 행사하는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③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는 형평성이 중시되고,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중시된다.
④ 정치적 의사 결정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장적 의사 결정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타난 정치적 의사 결정과 시장적 의사 결정의 차이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치적 의사 결정은 투표와 같은 정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성원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동등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민주적 절차와 형평성을 중시한다.
시장적 의사 결정은 시장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권의 정도가 달라진다. 수요·공급의 원칙, 경제적 효율성, 완전 합의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제시문은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가 모두 시장적 의사 결정 또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뿐, 자원의 배분은 정치적 결정, 소득의 분배는 시장적 결정으로 각각 고정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자원의 배분은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소득의 분배는 시장적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다'이다. 올바르게는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는 모두 시장적 의사 결정과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이다.
② O — 제시문은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 자신의 경제력 크기에 따라 결정권을 행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므로 적절하다.
③ O — 제시문은 정치적 의사 결정이 민주적 절차와 형평성을 중시하고, 시장적 의사 결정이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④ O — 제시문은 정치적 의사 결정이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장적 의사 결정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므로 적절하다.

### 오답 포인트

①은 제시문의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와 '두 가지 형태의 의사 결정'을 일대일로 연결해 놓은 함정이다. 제시문은 두 경제 활동 각각이 어느 한 방식에만 속한다고 구분하지 않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의 비교 항목을 대응시켜 판단한다. 정치적 의사 결정은 투표·동등한 결정권·형평성이고, 시장적 의사 결정은 경제력에 따른 결정권·수요와 공급·효율성이다. 제시문에 없는 일대일 대응이나 단정이 추가된 선지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정치는 투표·평등·형평성, 시장은 경제력·수요와 공급·효율성이다.

NoteBase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적절한 것은?
① 요즘 앞산에는 진달래가 한참이다.
② 사업 결과 발표는 보고서로 가름합니다.
③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그란 파문이 인다.
④ 강연장에 걷잡아서 백 명이 넘게 온 듯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형태와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을 문맥에 맞게 구별하고, '일다'의 올바른 활용형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한 때를,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이나 정도가 매우 큰 상태를 뜻한다. '갈음하다'는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뜻이고, '가름하다'는 쪼개거나 구별한다는 뜻이다. '걷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닫는 형세를 붙들어 바로잡는다는 뜻이고, '겉잡다'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한다는 뜻이다. '일다'에 현재형 어미 '-ㄴ다'가 붙으면 어간의 'ㄹ'이 탈락하여 '인다'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진달래가 활짝 피어 가장 왕성한 때라는 뜻이므로 '한참이다'가 아니라 '한창이다'가 알맞다.
② X — 발표를 보고서로 대신한다는 뜻이므로 '보고서로 가름합니다'가 아니라 '보고서로 갈음합니다'가 알맞다. '가름하다'는 쪼개거나 구별한다는 뜻이다.
③ O — 돌을 던져 파문이 생긴다는 뜻의 기본형은 '일다'이다. '일다'에 '-ㄴ다'가 붙으면 'ㄹ'이 탈락하므로 '동그란 파문이 인다'가 올바르다.
④ X — 참석 인원을 대강 짐작한다는 뜻이므로 '걷잡아서'가 아니라 '겉잡아서'가 알맞다. '걷잡다'는 치닫는 형세를 붙들어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주로 '걷잡을 수 없다'와 같이 쓰인다.

**오답 포인트**

③의 '인다'를 기본형 '인들다'처럼 잘못 생각하거나, '일다'의 'ㄹ' 탈락을 놓치기 쉽다. 또한 ①의 '한참/한창', ②의 '가름/갈음', ④의 '걷잡다/겉잡다'는 발음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문맥상 뜻이 서로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낱말을 기본형으로 되돌린 뒤 문장 속 의미와 대조한다. '왕성한 때'는 '한창', '대신함'은 '갈음', '대강 짐작함'은 '겉잡음'으로 판단한다. 활용형은 어간과 어미를 나누어 '일다 + -ㄴ다 → 인다'처럼 'ㄹ'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왕성할 때는 ‘한창’, 대신할 때는 ‘갈음’, 대강 짐작할 때는 ‘겉잡다’, 파문은 ‘인다’이다.

NoteBase

14. 다음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은?

>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돌봄 기간이 길수록 종(種)의 지능이 높다고 한다. 까마귀의 새끼 돌봄 기간은 4 ~ 6주로 다른 새들에 비해 긴데, 이 때문에 까마귀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지능이 월등히 높다. 호모 사피엔스가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느 종보다도 긴 돌봄 기간을 통해 뇌의 용적과 육체를 발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돌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
> 돌봄이란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주변 사람이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돌봄의 개념이 최근 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보살펴주는 것이 종전의 돌봄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장애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돌봄 활동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기술적으로 확장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는 것이다.

① 돌봄의 개념
② 종전의 돌봄 개념과 최근의 돌봄 개념의 차이
③ 한 종의 새끼 돌봄 기간이 그 종에게 미치는 영향
④ 최근의 돌봄 활동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특히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 주의해야 한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어를 지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한다. 지문은 돌봄의 개념, 종전과 최근의 돌봄 개념 차이, 새끼 돌봄 기간이 종의 지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돌봄 활동이 사회적·기술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서술하지만, 그것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지문은 돌봄을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주변 사람이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돌봄의 개념이 나타나 있다.
② O — 종전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돌봄이었다면, 최근에는 장애 여부나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누구든 돌볼 수 있도록 개념이 확장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두 개념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③ O — 지문은 새끼 돌봄 기간이 길수록 종의 지능이 높으며, 긴 돌봄 기간이 뇌의 용적과 육체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새끼 돌봄 기간이 그 종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 있다.
④ X — 지문에는 최근 돌봄 활동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기술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돌봄 활동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시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며, 올바르게는 '최근 돌봄 활동의 사회적·기술적 확장과 그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나 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선별적으로'는 지문의 '사회적·기술적으로'와 형태가 비슷해 지문에 나온 표현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지문은 돌봄의 확장 양상만 말할 뿐, 선별 여부나 그 이유를 다루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핵심어를 지문에서 찾고, 같은 주제가 언급되었는지만이 아니라 선지가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까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유'를 묻는 선지라면 지문에 실제 인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언급과 설명은 다르다. '이유'가 선지에 있으면 지문 속 인과 근거까지 있어야 한다.

NoteBase

15. <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 침>

○ 서론은 중심 소재의 개념 정의와 문제 제기를 2개의 절로 작성할 것
○ 본론은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작성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2개의 절로 작성할 것

<보고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Ⅰ. 서론
1. 디지털 격차의 정의 및 구체적 사례
2. (가)

Ⅱ. 디지털 격차의 발생 원인
1. (나)
2. 경제 수준에 따른 디지털 기기 보급률 차이

Ⅲ. 디지털 격차의 해소 방안
1. 노인 맞춤형 디지털 기술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2. (다)

Ⅳ. 결론
1. 디지털 격차 완화로 인한 공동체 통합 효과
2. (라)

① (가) – 디지털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증가
② (나) – 고령 인구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③ (다) – 공공기관을 통한 디지털 기술 활용 우수 사례 전파
④ (라) –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보고서의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서론·본론·결론의 기능에 맞는지, 특히 본론의 하위 항목이 서로 대응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서론은 중심 소재의 개념을 정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본론은 원인과 해결 방안처럼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며, 지침에서 대응을 요구하면 같은 번호의 하위 항목끼리 내용상 연결되어야 한다. 결론은 기대 효과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디지털 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증가'는 디지털 격차의 심각성을 드러내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므로 서론의 두 번째 항목에 적절하다.
② O - (나)의 '고령 인구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은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며, III-1의 '노인 맞춤형 디지털 기술 교육'과 직접 대응하므로 적절하다.
③ X - (다)의 '공공기관을 통한 디지털 기술 활용 우수 사례 전파'는 II-2의 '경제 수준에 따른 디지털 기기 보급률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은 '우수 사례 전파'이며, 올바르게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보급 및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처럼 경제 수준에 따른 기기 접근 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④ O - (라)의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결론의 두 번째 항목에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그 자체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은 해결 방안의 일반적 타당성보다 지침에 제시된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하는지를 묻는다. '경제 수준에 따른 기기 보급률 차이'에는 사례 전파가 아니라 기기·통신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접근성 개선 방안이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론은 개념 정의와 문제 제기, 본론은 원인과 해결 방안,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라는 기능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대응 조건이 있으면 같은 번호의 항목을 짝지어 '원인과 해결책이 직접 연결되는가'를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서론은 정의·문제 제기, 본론은 원인·대응 방안, 결론은 효과·향후 과제이다. 본론의 대응 관계는 같은 번호끼리 원인과 해결책이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NoteBase

16. (가) ~ (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방언도 다 그것대로 훌륭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더 훌륭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 (나) 표준어가 특별 대접을 받은 방언이라 하여 표준어가 다른 방언보다 언어학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언어는 아니다. 이 점은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로서, 방언은 체계가 없고 조잡한 언어이며 표준어는 올바르고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다) 그러나 문명국의 언어가 더 체계적이고 미개국의 언어가 덜 체계적이라고 하는 사고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듯이 방언이 표준어보다 체계가 없고 덜 우수한 언어라는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이다.
> (라) 표준어가 다른 방언보다 좋은 체계를 갖춘 언어라서가 아니라 가령 행정, 교통, 문화 등의 중심지에서 쓰이는 조건 등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보급이 쉬운 이점이 있어 표준어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점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① (나) – (라) – (다) – (가)
② (나) – (다) – (가) – (라)
③ (라) – (다) – (가) – (나)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사이의 접속 표현과 지시어를 근거로,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통념을 제시한 뒤 이를 반박하고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순서를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나) — 표준어는 우월하고 방언은 체계가 없는 조잡한 언어라는 일반인의 오해를 제시한다.
2. (다) — '그러나'로 앞의 오해를 반박하고, 방언이 표준어보다 덜 체계적이고 덜 우수하다는 생각도 잘못이라고 밝힌다.
3. (가) — 방언도 훌륭한 체계를 갖추며 때로는 더 훌륭한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근거를 덧붙인다.
4. (라) — 표준어의 지위는 언어적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행정·교통·문화의 중심지에서 쓰여 영향력과 보급의 이점을 얻은 결과라고 결론짓는다.

왜 이 순서: (다)의 '그러나'는 (나)의 오해를 반박하고, (가)는 그 반박을 구체화하며, (라)의 '좋은 체계를 갖춘 언어라서가 아니라'는 앞의 논의를 받아 표준어의 실제 성립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나) 뒤에는 그 오해를 '그러나'로 반박하는 (다)가 와야 하는데, 이 선지는 결론에 해당하는 (라)를 바로 배치하였다. 틀린 순서 '(나)-(라)-(다)-(가)'는 '(나)-(다)-(가)-(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나)에서 통념을 제시하고, (다)에서 이를 반박한 뒤, (가)에서 방언의 체계성을 뒷받침하고, (라)에서 표준어가 지위를 얻은 실제 이유를 밝히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③ X — (라)는 표준어가 우수해서 표준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므로 글의 첫머리에 올 수 없고, (나)의 통념 제시가 먼저 와야 한다. 틀린 순서 '(라)-(다)-(가)-(나)'는 '(나)-(다)-(가)-(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라)의 결론을 제시한 뒤 (나)에서 다시 통념을 꺼내고 (가), (다)로 반박하는 것은 논리의 전개가 거꾸로 된다. 또한 (다)의 '그러나'가 반박할 (나)와 떨어져 있다. 틀린 순서 '(라)-(나)-(가)-(다)'는 '(나)-(다)-(가)-(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가)와 (다)가 모두 방언의 체계성을 옹호하므로 둘의 순서를 바꾸기 쉽다. 그러나 (다)는 '그러나'로 (나)의 오해를 직접 반박하고, (가)는 그 반박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라)는 '좋은 체계를 갖춘 언어라서가 아니라'라는 대비를 통해 앞의 논의를 정리하는 결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문제에서는 먼저 접속어가 반박하는 앞 문장을 찾고, 다음으로 지시어와 반복되는 핵심어의 연결을 확인한 뒤, 원인이나 결론을 정리하는 문장을 마지막에 배치한다. 이 글은 '오해 제시 → 그러나를 통한 반박 → 반박의 구체화 → 실제 원인과 결론'의 구조이다.

**암기 포인트**

'통념 → 그러나 반박 → 근거 → 결론'의 흐름으로 기억한다.

NoteBase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케이팝이란 용어는 본디 대중음악이라는 영어 단어 'popular music'과 대한민국을 뜻하는 'K(Korean)'의 합성어로 한국의 대중가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표현은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돌 음악에 국한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케이팝이라는 용어가 한류 열풍 이후에 생긴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용례이며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케이팝을 아이돌 음악으로만 국한시켜 사용할 경우 한류의 확장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돌 음악 이전의 한국 대중음악까지 포괄하여 케이팝의 개념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책의 제목을 『케이팝 인문학』이라 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책에서는 최근의 아이돌 음악만이 아니라 1950 ~ 1960년대 트로트에서부터 1970 ~ 1980년대 유행가, 1990년대 이후의 히트곡 등 한국의 대중가요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한국의 대중가요는 모두가 케이팝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케이팝 = 아이돌 음악'이라고 굳어진 인식을 바로잡고, 한국의 대중가요사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옥같은 노래들을 당당히 케이팝의 반열에 올리고자 합니다.

① 케이팝이 대중에게 미친 영향을 사례를 들어 기술하고 있다.
② 케이팝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③ 케이팝의 특징을 아이돌 음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대조하고 있다.
④ 케이팝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면서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글의 중심 내용과 설명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케이팝을 아이돌 음악으로만 보는 통념을 비판하고, 아이돌 음악 이전의 한국 대중가요까지 포함하도록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다.

NoteBase

### 핵심 개념

통념 비판: 널리 굳어진 인식의 한계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이다.
개념의 재규정: 기존에 좁게 쓰이던 말의 범위나 의미를 새롭게 정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케이팝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아이돌 음악'이라는 좁은 통념을 비판한 뒤, 1950~1960년대 트로트부터 이후의 유행가와 히트곡까지 한국 대중가요 전체를 케이팝으로 포괄한다.

### 선지별 해설

① X — 글은 케이팝이 대중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대중에게 미친 영향을 사례를 들어 기술'이다. 올바르게는 케이팝을 아이돌 음악으로 한정하는 통념의 문제점과 개념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한다고 해야 한다.
② X — 글은 시대별로 케이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양상이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이유'이다. 올바르게는 '케이팝'이라는 용어가 한류 이후 생겨 아이돌 음악에 국한되어 쓰이게 된 배경과 그 한계를 설명한다고 해야 한다.
③ X — 아이돌 음악 이전의 트로트·유행가·히트곡을 언급하지만, 이를 아이돌 음악과 특징별로 대조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특징을 아이돌 음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대조'이다. 올바르게는 시대별 한국 대중가요를 열거하여 케이팝의 포괄 범위를 넓힌다고 해야 한다.
④ O — 글은 케이팝을 아이돌 음악으로만 보는 통념을 '잘못된 용례'라고 비판하고, 과거부터 사랑받은 한국 대중가요 모두를 케이팝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 오답 포인트

본문에 '1950~1960년대', '1970~1980년대', '1990년대 이후'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②나 ③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시대 구분은 평가 변화의 이유나 음악적 특징의 대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케이팝에 포함할 한국 대중가요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열거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설명 방식 선지는 본문에 실제로 쓰인 방식과 목적을 함께 확인한다. '사례', '평가 변화', '대조'가 선지에 있으면 구체적 사례, 시대별 평가, 양쪽 특징의 대응이 본문에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점검한다. 이 글은 '기존 통념 제시 → 한계 비판 → 개념 확장'의 흐름으로 전개된다.

### 암기 포인트

아이돌 음악에 한정된 통념 비판, 한국 대중가요 전체로 케이팝 개념 확장이다.

NoteBase

18. 다음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까? 네, 없군요. 그렇다면 독도가 우리 땅인 구체적인 근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청중의 반응을 보고) 역시 예상대로 우리는 독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중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 (화면을 제시하며)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입니다. 내용을 해석하면 대한 제국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도감을 군수로 개칭 및 승격하고, 관할 구역에 석도, 즉 오늘날의 독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대한 제국은 1900년 10월 27일 관보에 이 칙령을 게재하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천명했습니다.
>
> … (중략) …
>
> 지금까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오늘날 독도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분께서도 독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화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②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고 질문하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③ 발표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보여주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발표 내용을 문제-해결 구조로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의의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발표문에 실제로 사용된 말하기 전략과 내용 조직 방식을 근거로 각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발표자는 도입에서 청중에게 연속으로 질문하고 반응을 살펴 독도에 관한 배경지식이 부족함을 확인한 뒤 화제를 제시한다. 본론에서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화면에 제시하고 그 내용을 해석한다. 마무리에서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독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

NoteBase

**핵심 개념**

발표 전략은 질문, 시각 자료, 요약과 당부처럼 청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 내용 조직 방식은 발표 내용을 시간 순서, 문제-해결, 원인-결과 등의 관계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선지의 표현이 발표문에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적용 기준**

질문의 기능, 화면 자료의 역할, 마무리 발언의 목적, 본론의 전개 순서를 발표문의 구체적인 문장과 대응시켜 판단한다. 특히 '문제-해결' 구조라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발표자는 '여러분께서도 독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화제인 독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다.

② O —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까?'와 '구체적인 근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청중의 반응을 살핀 뒤, 예상대로 독도를 잘 모른다고 말하며 화제를 제시한다.

③ O —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화면에 제시하고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석도, 즉 오늘날의 독도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해석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④ X — 발표는 독도에 관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짝지어 제시하지 않으므로 '문제-해결 구조'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올바르게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제시하여 독도의 가치와 의미를 부각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발표의 목적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만 보고 ④의 '문제-해결 구조'까지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발표 목적과 내용 조직 방식은 별개이며, 본문에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와 시대적 흐름이 제시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표 전략을 묻는 문제에서는 선지의 핵심 표현을 발표문의 구체적 문장과 대응시킨다. 내용 조직 방식은 문제와 해결책, 원인과 결과, 시간의 흐름 등 실제 전개 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발표 목적과 내용 조직은 구분한다. 문제-해결 구조에는 반드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이 함께 나타난다.

NoteBase

19. (가) ~ (라)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은?

> ○ 선생님의 이론을 받들어 (가) 했다.
> ○ 축제 분위기에 (나) 옷차림이 필요하다.
> ○ 신축 청사의 공사 기간을 일주일 더 (다).
> ○ 시대의 변화에 (라) 않게 대응해야 한다.

① (가) – 쫓기로
② (나) – 걸맞은
③ (다) – 늘였다
④ (라) – 뒤쳐지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나 형태가 비슷한 낱말의 뜻과 문맥에 맞는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좇다'는 목표·이상·의견 등을 따르는 것이고, '쫓다'는 사람이나 동물을 뒤따라가거나 어떤 대상을 몰아내는 것이다. '걸맞다'는 서로 어울리거나 알맞다는 뜻이다. '늘이다'는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고, '늘리다'는 수량·시간·분량 등을 많게 하는 것이다. '뒤처지다'는 남보다 뒤에 처진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선생님의 이론을 받들어'는 이론을 따른다는 뜻이므로 '쫓기로'가 아니라 '좇기로'가 알맞다. 올바른 문장은 '선생님의 이론을 받들어 좇기로 했다.'이다.
② O — '걸맞은'은 '서로 어울리거나 알맞은'이라는 뜻이므로 축제 분위기와 어울리는 옷차림이 필요하다는 문맥에 맞다.
③ X — 공사 '기간'은 시간의 분량이므로 '늘였다'가 아니라 '늘렸다'가 알맞다. 올바른 문장은 '신축 청사의 공사 기간을 일주일 더 늘렸다.'이다.
④ X — 남보다 뒤에 처진다는 뜻의 표준어는 '뒤처지다'이므로 '뒤쳐지지'가 아니라 '뒤처지지'가 알맞다. 올바른 문장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좇다'와 '쫓다'의 발음이 비슷하고, ③은 '늘이다'와 '늘리다'가 모두 사동의 뜻을 지니며, ④는 '쳐지다'라는 말에 이끌리기 쉬워 헷갈린다. 특히 기간처럼 시간의 양을 많게 할 때는 '늘리다'를 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맥 속 목적어를 먼저 확인한다. 이론·뜻·규범을 따르면 '좇다', 대상을 뒤따라가거나 몰아내면 '쫓다'를 쓴다. 길이를 길게 하면 '늘이다', 수량·분량·시간을 많게 하면 '늘리다'를 쓰며, 남보다 뒤에 처지는 뜻은 '뒤처지다'로 적는다.

**암기 포인트**

이론은 좇고, 대상을 쫓는다. 기간은 늘리고, 시대에는 뒤처지지 않는다.

NoteBase

20. 다음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꼴
지금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① '공'의 모양과 속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친근한 사물을 통해 삶에 대한 자세를 일러주고 있다.
③ 도치법, 반복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④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의 중심 소재인 '공'의 상징적 의미와 표현 방법, 시상 전개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시에서 '공'은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오르는 속성을 지닌 소재로, 시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삶의 자세를 형상화한다. 시상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공'의 속성을 반복하고 확장하면서 독자에게 탄력 있는 삶의 태도를 권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떨어져도 튀는’,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등의 표현으로 공의 모양과 탄력적 속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② O —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을 통해 시련을 겪어도 다시 일어서려는 삶의 자세를 드러낸다.

③ O —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등의 반복이 중심 의미를 강조하며,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둥근 공이 되어’처럼 서술의 일반적인 어순을 바꾼 표현도 강조 효과를 낸다.

④ X — 작품에는 과거·현재·미래를 구분하는 시간 표지가 없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이다. 올바르게는 ‘공의 속성과 이미지를 반복·확장하며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상이 전개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지금’만 보고 시간의 흐름을 떠올리기 쉽지만, 하나의 시간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과거·현재·미래의 순차적 전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각 연은 시간 변화가 아니라 ‘공’의 탄력성과 상승 이미지를 거듭 강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상 전개 방식을 판단할 때에는 선지에 제시된 각 단계가 작품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시간적 흐름이라면 과거·현재·미래를 보여 주는 시간 표지나 사건의 변화가 이어져야 하며, 같은 소재와 속성이 되풀이되면 반복·확장 전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떨어져도 다시 튀는 공은 시련 뒤의 회복과 삶의 탄력성을 상징한다.

NoteBase